

함께 부르는 내일의 희망 모두가 같은 꿈을 키울 때 내일의 희망은 푸르다

남한강 사랑 전국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

제천시속가능발전협의회



왜 지구환경문제는 대부분 복잡하고도 먼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고 할까? 일반적인 의식 속에서는 환경오염, 환경 파괴 등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인식 때문에, 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자발적 각성과 긴급대응의 자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슬쩍 기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환경문제일 수 있다.

정말 내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고 스스로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것은 꿈으로만 끝나는 것인가?

최근 몇 년 난무하는 말들 가운데 ‘저탄소 사회 구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지구’ 등 입에 착착 붙지 않는 어려운 말 또한 알고 보면 멈춤을 요구하고, 느림을 의미하며, 삶의 언저리를 돌아보게 하는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논제들이 아닌가? 그냥 좋은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만들어 가는 일에 계층을 망라하여 즐겁게 참여할 수는 없을까?

제천시속가능발전협의회

주 소 2718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전 화 043-648-6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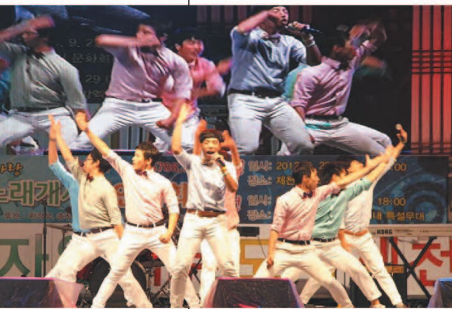
팩 스 043-648-6786

이메일 jckfem@hanmail.net



사실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는 바로 이러한 고민 끝에 2008년 실험적으로 시도 되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흥이 많고 노래를 좋아한다. 노래를 좋아하는 우리 국민의 정서로서 밥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노래하듯이 환경보호운동에 시민이 앞장서게 된다면 세상은 얼마나 쾌적해질까? 쾌적한 정주여건은 도시의 행복지수를 높이게 되고 시민의 행복을 지켜줄 것이다.

창작 노래대회가 아니라 원래 있던 노래에 가사만 바꿔서 부르니 부담이 줄어든다. 평소 알고 있는 노래에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담아 새로운 가사 옷을 입히고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대회로 운영한다. 대회의 관전 포인트는 바꾼 노래를 관중에게 각인시키고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퍼포먼스에 있다. 퍼포먼스는 각 팀들의 특징이 드러나고 노랫말의 이해를 도우며 보는 이의 즐거움을 책임져준다. 이 과정에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좀 더 쉽게 인지하고 스스로 홍보대사가 될 수 있다. 환경을 노래하는 과정에서 지구환경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



을 및 더 좋은 노랫말을 만들기 위하여 여기저기 자료도 찾아 보고 토론을 하는 동안 환경문제에 자기주도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 노래 대회를 통하여 비로소 낯설기만 했던 '저탄소 사회 구현'은 구호로만 남지 않고 자발적 각성과 실천의 당위성을 갖는 데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는 환경문제인식의 확산이자 보람 있는 캠페인 성격을 띠는 새로운 환경교육의 장르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목적이자 배경이 되었다.

사업내용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일까?
 누군가 앞에서 노래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일까?
 지구를 지킨다는 의미가 담긴 노래대회라서 그런가?
 실험적으로 추진되었던 제1회 대회는 환경가요제라는 이름으로 2008년 4월 지구의 날 기념행사로 제천시립 도서관 다섯나무 극장에서 문을 열었다.

과연 사람들이 이런 노래대회에 관심을 가져줄까 하던 우려는 잠시. 의자 없이 계단식 극장에 겹쳐 앉는 관객 300명 규모가 빼곡하여 바깥으로 사람들이 흘러넘쳤다. 소위 주최 측 추산 400여명의 관객으로 첫 무대가 큰 호응을 얻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조금씩 무대가 커지고 시민들과 어울리는 축제 마당으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1회 대회는 '기후보호를 위한 노래'를 슬로건으로 환경가요제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경험 없는 첫 걸음을 뗀다는

것은 두려움이 앞서기도 한다. 때문에 사업을 홍보하고 독려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그 결과 예상보다 더 다채로운 참가자가 몰려들었다. 사실 이 노래대회는 많은 볼특정 다수에게 교육 및 홍보가 목적인만큼 관중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일 지라도 혼자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관중이 부족하여 행사가 썰렁해 질까봐 자구책으로 짜낸 대안이지만, 지금껏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으는 효과만점의 아이디어가 되었다.

행사성격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는 혼자 노래실력을 뽐내는 대회가 아니다. 대회의 참가 범위는 가족, 친구, 동호회, 직장 단위를 비롯해 팀을 이루어야 출전이 가능하다. 팀원들은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선정하고, 그 노랫말을 변경한다, 그리고 그 노랫말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의식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것이 가 평가해 본다. 또한 노래연습을 하면서 함께 노랫말의 의미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더욱 관심을 끌기 위해 퍼포먼스를 준비한다. 이런 과정에 구성원들은 팀워크가 단단해지고 우정이 두터워지는 것이다.

노래는 노래로만 끝나는 것일까? 바로 기획자의 기대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실천적 생활패턴의 변화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소위 연상법을 적용해서 그림을 짚어가 보자.

딱딱한 의자에 앉아 제공되는 강사의 환경교육을 주입하는 교육과정과 환경을 노래하면서 노랫말의 확산과 전파를 위해 환경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과정이 있다면 어떤 것이 더 깊게 각인될 것인가? 기획자는 당연히 후자에 무게를 두게 된다. 스스로 노래하고 전파하던 의미를 행동으로 옮기는





빛나는 퍼포먼스로 갈채를 받은 큰빛아이들



슈퍼맨 복장으로 주목을 끄는 가족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더 쉽고, 더 친숙한 말들은 없고, 더 관심 끄는 실천방법들은 없을까를 고민했던 이유일 것이다.

환경 분야의 자기주도 학습

화석연료 증가, 온실가스 증가, 지구 온난화,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 미세먼지, 황사, 중금속 오염, 수은 중독, 산림 훼손, 산불, 홍수, 가뭄, 사막화 현상, 물 부족, 식량 부족, 음식물 쓰레기 증가, 생태계 파괴, 재산 피해 증가, 인류의 건강 위협, 인명 피해 증가 등... 언급된 용어들은 이들의 노랫말에 녹아들고 있는 핵심어들이자 현재 지구 기후변화의 원인이며,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환경문제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속 시원히 전파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우리는 환경 분야의 자기주도 학습과정이라 부른다.

이렇게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학습의 시간이 또 있을까?

누가 하라고 등 떠밀어서 귀찮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대에서 스타가 되고 싶거나 작은 이벤트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즐기는 것이 동기였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들은 이렇게 젖어드는 것이다.

마치 하얀 도화지에 떨어진 물감 한 방울처럼 조용히 환경의식이 번져가는 것이다. 이걸 아름다운 초록빛일 것이다.

이것들은 자라는 청소년기 팀들에게는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는 하나라는 자연생태적 감수성을 배양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친구와 쌓인 우정의 깊이를 한 켠 높여줄 것이다. 노랫말책자는 예쁘게 제작하여 관내 학교 및 기관단체에 보급하고 입상한 팀은 가끔 제천시속가능발전협의회 행사에 초청하여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행사의 특징

행사의 특징은 즐겨 부르던 노래 곡에 오염된 자연 환경과 지구를 아름답게 보전하자는 호소를 노랫말로 개사하여 노래 경연을 하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예술 활동을 통해 창조적, 교육적, 실천적 홍보가치를 담는 행사라는 것이다. 환경보전의 홍보와 문화정서를 함양하고 우수 작품을 발굴,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목적과 함께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환경보전 이벤트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호응 높은 녹색환경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두 번째 행사부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오늘에 이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인근지역에 주요관계기관 및 환경 분야 전문가 그룹을 환경협의회로 구성하고 있는데, 제천시역에서도 청풍면 일대가 댐건설로 수몰되어 청풍호수에 잠겨버렸다. 이 때문에 충주호환경협의회 구성되어 있고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면서 3개 지자체로부터 본 사업을 공유하고 민관협력이 지역사회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제천시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하는 시민환경지도자대학 총동문회의 활동이다. 시민환경지도자대학은 제천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일반시민들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며, 1,2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매년 본 행사의 주관단체가 되어 직접 행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진행과 자원봉사로 운영에 참여하는가 하면 100여점의 경품을 협찬하여 출전자와 관람객에 대한 행운선물을 제공한다.

사실 노래대회만으로도 몇 안 되는 실무자들의 에너지는 탈진상태가 되지만, 시민환경지도자대학총동문회 임원진 및 수료생에서 발굴된 환경강사진, 솔방죽 해설사, 또한 평생학습동





아리 및 기관단체 가운데 참여단체를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 추진위원회로 구성하여 업무 분장을 하게 된다. 운영본부는 총동문회 임원, 체험부스는 각 참여단체, 무대운영은 실무진, 자원봉사자는 객석관리, 그린리더는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부스 참여 등 전담 활동이 정해진다. 이런 선도적인 모습들은 아세아시멘트(주),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대림비엔코 등의 기업과 기관단체에게도 사회 참여 및 연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행사 성격 및 추진과정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가 하나라는 소중함을 인지하고 노래연습 기간을 통해 단결심과 환경의식 전환을 체험하는 행사로 운영된다.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는 좋은 노랫말이 발굴되고 흥겨운 무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머물지 않고 교육적, 홍보적, 가치측면에서 자연환경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교육 홍보캠페인과 퍼포먼스가 있으며, 환경보호 및 다채로운 녹색실천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노래집을 배포하고 입상곡은 행사 시 홍보하고 초청공연 등이 이루어진다.

뭐니 뭐니 해도 행사는 홍보가 중요하다. 행사의 홍보를 위해서 청소년서포터즈를 모집 구성하여 SNS 홍보와 직접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다. 이런 대회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향유물이 된다면 망하는 행사이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고 즐거운 노래와 화려한 퍼포먼스에 빠져든다. 이로 인한 각인효과가 최고봉이다. 때문에 예선과정에서 조건처럼 출전팀 퍼포먼스를 주문하게 되고, 결과는 기대를 넘는 볼거리이며 무대를 선물 받는다. 함께 보는 즐거움이 행사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행사 관련 에피소드도 깨알 같은 흥밋거리다.

네 번째 대회였던가? 젊은 청년들이 뭉쳐서 N아동복지관 친구들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무려 한 달 여 기간을 밤잠을 설치가며 20명의 아이들과 카드섹션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노랫말을 익히는 연습을 했다. 상당히 빠른 템포의 “룩셈부르크”를 개사하고, 이 노래에 맞는 카드섹션을 통하여 환경보호 캠페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박진감 있는 무대였다. 이들이 줄음과 맞바꾼 그림카드 300여 장... 어지간하면 엄마말씀 거역할 것 같은 말썹꾸러기들이 자원봉사로 달려가는 형아나 누나들의 지도에 얼마나 협조해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무대는 상당한 내공의 불거리였고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노고에 걸 맞는 결과는 대상인 환경부장관상감인데, 심사위원의 성적표에는 미안한 결과로 아쉬웠던 기억...

코레일충북지역본부에서는 노랫말을 회사 내에서 사전 공모하고 출전한 팀을 선발하여 사내 오디션을 거쳐서 대회에 출전시킨다는 전언으로 즐거움을 주었다. 이들이 회사의 명예를 걸머지고 최선을 다해 실력을 뽐내는데, 노랫말도 퍼포먼스도 언제나 장원이다. 또한 시민환경지도자대학 총동문회의 경우 그해 마지막 졸업 기수는 의무적으로 노래대회에 참여해야 하고 제천시속가능발전협의회 모든 행사에 주관기수가 되어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 한 팀 한 팀 사연도 많고 노랫말도 퍼포먼스도, 그저 한번보고 버리기엔 너무도 아까운 행사가 된다.

각설하고 여하튼 행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고, 바뀐 생각이 생활모습으로 이어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교육의 힘이다. 어떤 행사인가? 제출된 노랫말들도 예쁘고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를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 분위기가 어떤지 단박에 확인할 수 있다.



2015경연대회 118명의 출전단



엄마댄스그룹 리스펙트



엄마와 쌍둥이 환경지킴이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다면, 인터넷 검색어 :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 클릭~!!

지난대회 동영상 보기

오마이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QmYXqezoKpM>

제이뉴스통신 <https://www.youtube.com/watch?v=hARvMZgf0dI>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0sBHA7Q7qh4>

바이올렛 https://www.youtube.com/watch?v=A_tQ94r9RL4

단비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LJSCUx9VM1k>

오마이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33WUoFLnspM>



사업 평가, 사업의 문제점과 그 요인, 보완점

사업평가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는 전국에서 유일한 행사이다.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환경노래대회로서 정말 예쁜 노랫말이 만들어진다. 개사곡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작곡이 대상을 차지하기도 하고, 뮤지컬로 대상을 차지하기도 한다. 금년에는 환경마당극 갈라쇼까지 등장해서 환호성이 메아리쳤다. 이런저런 성과들에 주목해하여 이 노래대회는 환경교육의 대중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환경교육의 새로운 장르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무대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역사회기관단체와 파트너십으로 환경체험 한마당의 부대행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사업의 문제점과 그 요인

그러나 매 해마다 대회를 통해 발굴되는 퍼포먼스와 노랫말들은 한 번의 행사로 그치기에는 아깝기 그지없다. 행사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치지만 결국 단 하루에 끝나는 단점이 있다. 더 넓은 확산과 보급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우리가 이 결과물을 홍보하거나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자체적인 행사시에 초청하여 재능기부 공연을 통해 선보이는 정도이다. 물론 이것은 대단한 성과이지만 이 또한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개사경연대회의 단점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노래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노래 작곡의 저작권 문제가 따르게 되므로 이를 녹화 보급하는 방법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사례의 현장을 방문했던 한 전문가는 이 대회는 전국대회보다는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는 지역축제로 키워가도 좋겠다는 조언도 해준다.

보완점

물론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는 행사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 있다. 이것은 나아가 새로운 환경운동의 한 장르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런 대회에서 사회변화나 마을 만들기 같은 너무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함께 축제같은 분위기 속에서 다시금 지구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작은 실천운동의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더 좋은 방안이 강구되길 바라면서 개사경연대회니만큼 창작대회로 확대, 변경하는 방안은 변화를 꾀하는 첫 시도가 되지 않을까 더 머리를 맞대야 할 터이다.

함께 부르는 내일의 희망! 모두가 같은 꿈을 키울 때 비로소 내일의 희망은 푸르러질 것을 믿는다.



〈참고자료 - 2015년 노랫말 2곡〉

출전팀명 : 우리는 쌍둥이 환경지킴이

출연진 : 최여리 외 2명

소속 : 가족 (화산초병설유치원)

팀소개 : 평소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쌍둥이 '하랑', '하음'이와 동요를 즐겨 부르는 엄마가 팀을 이루어 우리의 소중한 물을 주제로 아름다운 가사를 써 보았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물, 언제나 깨끗이 지켜요!"

제목 : 소중한 우리의 물, 언제나 깨끗이 지켜요

원곡 : 봄하루

하랑 하음이 물 먹고 있다
우리 앞마당에 목마른 예쁜 꽃들처럼
하랑 하음이 물을 씻고 있다
비에 씻은 얼굴 뽀내는 강아지들처럼

깨끗한 물속에 아이들은 천병 천병
엄마는 소중한 물로 가족을 위한 저녁
온가족 다함께 따뜻한 차를 나눠
이야기 꽃피우며 행복해
물은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
소중한 우리의 물 언제나 깨끗이 지켜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깨끗한 물속에 물고기는 헤엄치고
숲속의 동물 친구들 물을 함께 마시고

모두들 뛰놀고 동그랗게 모여 앉아
따스한 땅의 품에 누우면.

하얀 뭉개구름 비를 내려준다
소중한 우리의 물 언제나 깨끗이 지켜요!

출전팀명 : 우리소리 우리가락 동호회

출연진 : 안선옥외6명

팀소개 : 우리소리 우리가락 동호회는 창단된 지 9개월 밖에 안 되지만 대단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단체이니 만큼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 환경이리랑

원곡 : 환경마당극 갈라쇼

(뽀뽀~ 하고 수질이 소리를 지르고, 등장하며 출랑대고 출쌩대며 노래를 흥얼거리며
뛰어 나오며 소리를 지른다.)

수질이 : 네 이놈! 그 끔찍한 세재를 왜? WHY?

뭐 잠시 기름때까지 흘려보내는 것이냐?

이런 후례자식을 보았나? 당장 멈추지 못하느냐 이놈아~

수질이 떠드는 소리에 놀라 토양이와 대기가 뛰어 나온다
 토양이 : 무슨 일이야?
 (수질이 세제를 가르치며....) 아~ 글씨 저 후레자식놈이...
 M1
 수질 : 토양아, 대기야. 오고가지를 마라 세제에 이내뭉이 다 오염되어간다.
 후렴) 환경 아리랑 오염 쓰리랑 세제가 난리 났네.~~
 아리랑 ㅎㅎㅎ 수질이 오염 되었네.
 세제 : (헛기침한다.) 크흠 험 흠. 얼싸구 꼴갑들을 떨어요...
 기름때: 그렇게 말하여 기름때를 버리는 게 뭐 때서.. 왜? WHY?
 (수질이, 토양이, 대기의 표정이 험악해 진다.)
 대기 : 멈춰보세 멈춰보세 하루라도 저 자동차 쉬었다 가세
 후렴) 환경아리랑 대기 쓰리랑, 자동차매연 때문에,
 아리랑 ㅎㅎㅎ 대기가 오염 되었네..
 토양이 : 오염되는 토양은 오염되고 싶어서 썩느냐
 오염된 수질이 스며들어 썩는다!
 후렴) 환경아리랑 대기 쓰리랑 ,수질오염 때문에~~.
 아리랑 ㅎㅎㅎ 토양이 다~ 썩었네.
 모두다 : 그럼시 수질도 오염 되쁘고 대기도 오염 되쁘고 토양까지도
 오염된 것이 구먼 이~~ 그럼 우리는 워쩐다나???
 (세제와 기름때가 민망해 하며 슬슬 뒷걸음질을 친다.)

M2
 환경이 : 기다려 기다려 아직 희망이 있다.
 심중에 환경 있거든 저 세제를 죽여라.
 (세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 세제와 기름때 도망간다.)
 후렴) 환경아리랑 오염 쓰리랑 ,아직 희망은 있네~~.
 아리랑 ㅎㅎㅎ 지구를 살려 보세.

수질이와 대기 그리고 오염이가 객석을 향해 소리친다.
 수질 : 얘! 그들말이야! 세제 줄여라~이!
 토양 : 얘! 그들말이야! 기름때 제발 버리지마라아~~
 대기 : 야! 그들말이야! 매연? 제발 뿜어 내지 좀 마란 말이 예
 다같이 : 나가 죽냐? 그들놈이 죽제!

M3
 다같이 : 환경아리랑 오염 쓰리랑, 아직 희망은 있네~~.
 아리랑 ㅎㅎㅎ 지구를 살려 보세.
 우리가 지킨 지구 후손에게 물려주고
 살기 좋은 강산에서 살아가게 하세.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ㅎㅎㅎ 아라리가 났네.
 만경창파에 두둥실 뜬 배 살아 숨 쉬는 수질위에서 노를 저어라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ㅎㅎㅎ 지구가 살아났네.X2

END

함께 부르는 내일의 희망 모두가 같은 꿈을 키울 때 내일의 희망은 푸르다

남한강 사랑 전국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

제천시속가능발전협의회



왜 지구환경문제는 대부분 복잡하고도 먼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고 할까? 일반적인 의식 속에서는 환경오염, 환경 파괴 등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인식 때문에, 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자발적 각성과 긴급대응의 자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슬쩍 기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환경문제일 수 있다.

정말 내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고 스스로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것은 꿈으로만 끝나는 것인가?

최근 몇 년 난무하는 말들 가운데 ‘저탄소 사회 구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지구’ 등 입에 착착 붙지 않는 어려운 말 또한 알고 보면 멈춤을 요구하고, 느림을 의미하며, 삶의 언저리를 돌아보게 하는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논제들이 아닌가? 그냥 좋은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만들어 가는 일에 계층을 망라하여 즐겁게 참여할 수는 없을까?

제천시속가능발전협의회

주 소 2718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전 화 043-648-6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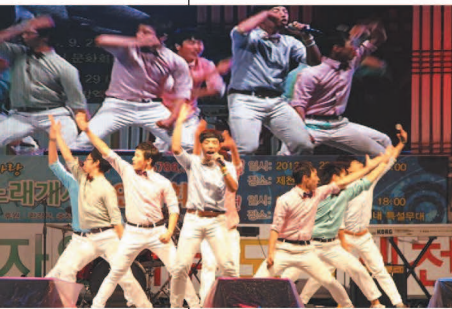
팩 스 043-648-6786

이메일 jckfem@hanmail.net



사실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는 바로 이러한 고민 끝에 2008년 실험적으로 시도 되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흥이 많고 노래를 좋아한다. 노래를 좋아하는 우리 국민의 정서로서 밥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노래하듯이 환경보호운동에 시민이 앞장서게 된다면 세상은 얼마나 쾌적해질까? 쾌적한 정주여건은 도시의 행복지수를 높이게 되고 시민의 행복을 지켜줄 것이다.

창작 노래대회가 아니라 원래 있던 노래에 가사만 바꿔서 부르니 부담이 줄어든다. 평소 알고 있는 노래에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담아 새로운 가사 옷을 입히고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대회로 운영한다. 대회의 관전 포인트는 바꾼 노래를 관중에게 각인시키고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퍼포먼스에 있다. 퍼포먼스는 각 팀들의 특징이 드러나고 노랫말의 이해를 도우며 보는 이의 즐거움을 책임져준다. 이 과정에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좀 더 쉽게 인지하고 스스로 홍보대사가 될 수 있다. 환경을 노래하는 과정에서 지구환경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



을 및 더 좋은 노랫말을 만들기 위하여 여기저기 자료도 찾아 보고 토론을 하는 동안 환경문제에 자기주도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 노래 대회를 통하여 비로소 낯설기만 했던 '저탄소 사회 구현'은 구호로만 남지 않고 자발적 각성과 실천의 당위성을 갖는 데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는 환경문제인식의 확산이자 보람 있는 캠페인 성격을 띠는 새로운 환경교육의 장르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목적이자 배경이 되었다.

사업내용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일까?
 누군가 앞에서 노래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일까?
 지구를 지킨다는 의미가 담긴 노래대회라서 그런가?
 실험적으로 추진되었던 제1회 대회는 환경가요제라는 이름으로 2008년 4월 지구의 날 기념행사로 제천시립 도서관 다섯나무 극장에서 문을 열었다.

과연 사람들이 이런 노래대회에 관심을 가져줄까 하던 우려는 잠시. 의자 없이 계단식 극장에 겹쳐 앉는 관객 300명 규모가 빼곡하여 바깥으로 사람들이 흘러넘쳤다. 소위 주최 측 추산 400여명의 관객으로 첫 무대가 큰 호응을 얻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조금씩 무대가 커지고 시민들과 어울리는 축제 마당으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1회 대회는 '기후보호를 위한 노래'를 슬로건으로 환경가요제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경험 없는 첫 걸음을 뗀다는

것은 두려움이 앞서기도 한다. 때문에 사업을 홍보하고 독려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그 결과 예상보다 더 다채로운 참가자가 몰려들었다. 사실 이 노래대회는 많은 볼특정 다수에게 교육 및 홍보가 목적인만큼 관중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일 지라도 혼자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관중이 부족하여 행사가 썰렁해 질까봐 자구책으로 짜낸 대안이지만, 지금껏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으는 효과만점의 아이디어가 되었다.

행사성격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는 혼자 노래실력을 뽐내는 대회가 아니다. 대회의 참가 범위는 가족, 친구, 동호회, 직장 단위를 비롯해 팀을 이루어야 출전이 가능하다. 팀원들은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선정하고, 그 노랫말을 변경한다, 그리고 그 노랫말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의식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것이 가 평가해 본다. 또한 노래연습을 하면서 함께 노랫말의 의미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더욱 관심을 끌기 위해 퍼포먼스를 준비한다. 이런 과정에 구성원들은 팀워크가 단단해지고 우정이 두터워지는 것이다.

노래는 노래로만 끝나는 것일까? 바로 기획자의 기대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실천적 생활패턴의 변화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소위 연상법을 적용해서 그림을 짚어가 보자.

딱딱한 의자에 앉아 제공되는 강사의 환경교육을 주입하는 교육과정과 환경을 노래하면서 노랫말의 확산과 전파를 위해 환경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과정이 있다면 어떤 것이 더 깊게 각인될 것인가? 기획자는 당연히 후자에 무게를 두게 된다. 스스로 노래하고 전파하던 의미를 행동으로 옮기는





빛나는 퍼포먼스로 갈채를 받은 큰빛아이들



슈퍼맨 복장으로 주목을 끄는 가족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더 쉽고, 더 친숙한 말들은 없고, 더 관심 끄는 실천방법들은 없을까를 고민했던 이유일 것이다.

환경 분야의 자기주도 학습

화석연료 증가, 온실가스 증가, 지구 온난화,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 미세먼지, 황사, 중금속 오염, 수은 중독, 산림 훼손, 산불, 홍수, 가뭄, 사막화 현상, 물 부족, 식량 부족, 음식물 쓰레기 증가, 생태계 파괴, 재산 피해 증가, 인류의 건강 위협, 인명 피해 증가 등... 언급된 용어들은 이들의 노랫말에 녹아들고 있는 핵심어들이자 현재 지구 기후변화의 원인이며,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환경문제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속 시원히 전파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우리는 환경 분야의 자기주도 학습과정이라 부른다.

이렇게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학습의 시간이 또 있을까?

누가 하라고 등 떠밀어서 귀찮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대에서 스타가 되고 싶거나 작은 이벤트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즐기는 것이 동기였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들은 이렇게 젖어드는 것이다.

마치 하얀 도화지에 떨어진 물감 한 방울처럼 조용히 환경의식이 번져가는 것이다. 이걸 아름다운 초록빛일 것이다.

이것들은 자라는 청소년기 팀들에게는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는 하나라는 자연생태적 감수성을 배양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친구와 쌓인 우정의 깊이를 한 켠 높여줄 것이다. 노랫말책자는 예쁘게 제작하여 관내 학교 및 기관단체에 보급하고 입상한 팀은 가끔 제천시속가능발전협의회 행사에 초청하여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행사의 특징

행사의 특징은 즐겨 부르던 노래 곡에 오염된 자연 환경과 지구를 아름답게 보전하자는 호소를 노랫말로 개사하여 노래 경연을 하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예술 활동을 통해 창조적, 교육적, 실천적 홍보가치를 담는 행사라는 것이다. 환경보전의 홍보와 문화정서를 함양하고 우수 작품을 발굴,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목적과 함께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환경보전 이벤트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호응 높은 녹색환경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두 번째 행사부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오늘에 이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인근지역에 주요관계기관 및 환경 분야 전문가 그룹을 환경협의회로 구성하고 있는데, 제천시역에서도 청풍면 일대가 댐건설로 수몰되어 청풍호수에 잠겨버렸다. 이 때문에 충주호환경협의회 구성되어 있고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면서 3개 지자체로부터 본 사업을 공유하고 민관협력이 지역사회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제천시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하는 시민환경지도자대학 총동문회의 활동이다. 시민환경지도자대학은 제천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일반시민들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며, 1,2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매년 본 행사의 주관단체가 되어 직접 행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진행과 자원봉사로 운영에 참여하는가 하면 100여점의 경품을 협찬하여 출전자와 관람객에 대한 행운선물을 제공한다.

사실 노래대회만으로도 몇 안 되는 실무자들의 에너지는 탈진상태가 되지만, 시민환경지도자대학총동문회 임원진 및 수료생에서 발굴된 환경강사진, 솔방죽 해설사, 또한 평생학습동





아리 및 기관단체 가운데 참여단체를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 추진위원회로 구성하여 업무 분장을 하게 된다. 운영본부는 총 동문회 임원, 체험부스는 각 참여단체, 무대운영은 실무진, 자원봉사자는 객석관리, 그린리더는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부스 참여 등 전담 활동이 정해진다. 이런 선도적인 모습들은 아세아시멘트(주),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대림비엔코 등의 기업과 기관단체에게도 사회 참여 및 연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행사 성격 및 추진과정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가 하나라는 소중함을 인지하고 노래연습 기간을 통해 단결심과 환경의식 전환을 체험하는 행사로 운영된다.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는 좋은 노랫말이 발굴되고 흥겨운 무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머물지 않고 교육적, 홍보적, 가치측면에서 자연환경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교육 홍보캠페인과 퍼포먼스가 있으며, 환경보호 및 다채로운 녹색실천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노래집을 배포하고 입상곡은 행사 시 홍보하고 초청공연 등이 이루어진다.

뭐니 뭐니 해도 행사는 홍보가 중요하다. 행사의 홍보를 위해서 청소년서포터즈를 모집 구성하여 SNS 홍보와 직접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다. 이런 대회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향유물이 된다면 망하는 행사이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고 즐거운 노래와 화려한 퍼포먼스에 빠져든다. 이로 인한 각인효과가 최고봉이다. 때문에 예선과정에서 조건처럼 출전팀 퍼포먼스를 주문하게 되고, 결과는 기대를 넘는 볼거리이며 무대를 선물 받는다. 함께 보는 즐거움이 행사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행사 관련 에피소드도 깨알 같은 흥밋거리다.

네 번째 대회였던가? 젊은 청년들이 뭉쳐서 N아동복지관 친구들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무려 한 달 여 기간을 밤잠을 설치가며 20명의 아이들과 카드섹션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노랫말을 익히는 연습을 했다. 상당히 빠른 템포의 “룩셈부르크”를 개사하고, 이 노래에 맞는 카드섹션을 통하여 환경보호 캠페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박진감 있는 무대였다. 이들이 줄음과 맞바꾼 그림카드 300여 장... 어지간하면 엄마말씀 거역할 것 같은 말썹꾸러기들이 자원봉사로 달려가는 형아나 누나들의 지도에 얼마나 협조해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무대는 상당한 내공의 불거리였고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노고에 걸 맞는 결과는 대상인 환경부장관상감인데, 심사위원의 성적표에는 미안한 결과로 아쉬웠던 기억...

코레일충북지역본부에서는 노랫말을 회사 내에서 사전 공모하고 출전한 팀을 선발하여 사내 오디션을 거쳐서 대회에 출전시킨다는 전언으로 즐거움을 주었다. 이들이 회사의 명예를 걸머지고 최선을 다해 실력을 뽐내는데, 노랫말도 퍼포먼스도 언제나 장원이다. 또한 시민환경지도자대학 총동문회의 경우 그해 마지막 졸업 기수는 의무적으로 노래대회에 참여해야 하고 제천시속가능발전협의회 모든 행사에 주관기수가 되어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 한 팀 한 팀 사연도 많고 노랫말도 퍼포먼스도, 그저 한번보고 버리기엔 너무도 아까운 행사가 된다.

각설하고 여하튼 행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고, 바뀐 생각이 생활모습으로 이어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교육의 힘이다. 어떤 행사인가? 제출된 노랫말들도 예쁘고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를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 분위기가 어떤지 단박에 확인할 수 있다.



2015경연대회 118명의 출전단



엄마댄스그룹 리스펙트



엄마와 쌍둥이 환경지킴이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다면, 인터넷 검색어 :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 클릭~!!

지난대회 동영상 보기

오마이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QmYXqezoKpM>

제이뉴스통신 <https://www.youtube.com/watch?v=hARvMZgf0dI>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0sBHA7Q7qh4>

바이올렛 https://www.youtube.com/watch?v=A_tQ94r9RL4

단비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LJSCUx9VM1k>

오마이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33WUoFLnspM>



사업 평가, 사업의 문제점과 그 요인, 보완점

사업평가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는 전국에서 유일한 행사이다.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환경노래대회로서 정말 예쁜 노랫말이 만들어진다. 개사곡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작곡이 대상을 차지하기도 하고, 뮤지컬로 대상을 차지하기도 한다. 금년에는 환경마당극 갈라쇼까지 등장해서 환호성이 메아리쳤다. 이런저런 성과들에 주목해하여 이 노래대회는 환경교육의 대중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환경교육의 새로운 장르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무대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역사회기관단체와 파트너십으로 환경체험 한마당의 부대행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사업의 문제점과 그 요인

그러나 매 해마다 대회를 통해 발굴되는 퍼포먼스와 노랫말들은 한 번의 행사로 그치기에는 아깝기 그지없다. 행사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치지만 결국 단 하루에 끝나는 단점이 있다. 더 넓은 확산과 보급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우리가 이 결과물을 홍보하거나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자체적인 행사시에 초청하여 재능기부 공연을 통해 선보이는 정도이다. 물론 이것은 대단한 성과이지만 이 또한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개사경연대회의 단점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노래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노래 작곡의 저작권 문제가 따르게 되므로 이를 녹화 보급하는 방법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사례의 현장을 방문했던 한 전문가는 이 대회는 전국대회보다는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는 지역축제로 키워가도 좋겠다는 조언도 해준다.

보완점

물론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는 행사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 있다. 이것은 나아가 새로운 환경운동의 한 장르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런 대회에서 사회변화나 마을 만들기 같은 너무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함께 축제같은 분위기 속에서 다시금 지구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작은 실천운동의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더 좋은 방안이 강구되길 바라면서 개사경연대회니만큼 창작대회로 확대, 변경하는 방안은 변화를 꾀하는 첫 시도가 되지 않을까 더 머리를 맞대야 할 터이다.

함께 부르는 내일의 희망! 모두가 같은 꿈을 키울 때 비로소 내일의 희망은 푸르러질 것을 믿는다.



〈참고자료 - 2015년 노랫말 2곡〉

출전팀명 : 우리는 쌍둥이 환경지킴이

출연진 : 최여리 외 2명

소속 : 가족 (화산초병설유치원)

팀소개 : 평소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쌍둥이 '하랑', '하음'이와 동요를 즐겨 부르는 엄마가 팀을 이루어 우리의 소중한 물을 주제로 아름다운 가사를 써 보았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물, 언제나 깨끗이 지켜요!"

제목 : 소중한 우리의 물, 언제나 깨끗이 지켜요

원곡 : 봄하루

하랑 하음이 물 먹고 있다
우리 앞마당에 목마른 예쁜 꽃들처럼
하랑 하음이 물을 씻고 있다
비에 씻은 얼굴 뽀내는 강아지들처럼

깨끗한 물속에 아이들은 천병 천병
엄마는 소중한 물로 가족을 위한 저녁
온가족 다함께 따뜻한 차를 나눠
이야기 꽃피우며 행복해
물은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
소중한 우리의 물 언제나 깨끗이 지켜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깨끗한 물속에 물고기는 헤엄치고
숲속의 동물 친구들 물을 함께 마시고

모두들 뛰놀고 동그랗게 모여 앉아
따스한 땅의 품에 누우면.

하얀 뭉개구름 비를 내려준다
소중한 우리의 물 언제나 깨끗이 지켜요!

출전팀명 : 우리소리 우리가락 동호회

출연진 : 안선옥외6명

팀소개 : 우리소리 우리가락 동호회는 창단된 지 9개월 밖에 안 되지만 대단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단체인 만큼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 환경이리랑

원곡 : 환경마당극 갈라쇼

(뽐뽐빠~ 하고 수질이 소리를 지르고, 등장하며 출랑대고 출쌩대며 노래를 흥얼거리며
뛰어 나오며 소리를 지른다.)

수질이 : 네 이놈! 그 끔찍한 세재를 왜? WHY?

뭐 잠시 기름때까지 흘려보내는 것이냐?

이런 후례자식을 보았나? 당장 멈추지 못하느냐 이놈아~

수질이 떠드는 소리에 놀라 토양이와 대기가 뛰어 나온다
 토양이 : 무슨 일이야?
 (수질이 세제를 가르치며....) 아~ 글씨 저 후레자식놈이...
 M1
 수질 : 토양아, 대기야. 오고가지를 마라 세제에 이내뭉이 다 오염되어간다.
 후렴) 환경 아리랑 오염 쓰리랑 세제가 난리 났네.~~
 아리랑 ㅎㅎㅎ 수질이 오염 되었네.
 세제 : (헛기침한다.) 크흠 험 흠. 얼싸구 꼴갑들을 떨어요...
 기름때: 그렇게 말하여 기름때를 버리는 게 뭐 때서... 왜? WHY?
 (수질이, 토양이, 대기의 표정이 험악해 진다.)
 대기 : 멈춰보세! 멈춰보세! 하루라도 저 자동차 쉬었다 가세
 후렴) 환경아리랑 대기 쓰리랑, 자동차매연 때문에,
 아리랑 ㅎㅎㅎ 대기가 오염 되었네..
 토양이 : 오염되는 토양은 오염되고 싶어서 썩느냐
 오염된 수질이 스며들어 썩는다!
 후렴) 환경아리랑 대기 쓰리랑 ,수질오염 때문에~~.
 아리랑 ㅎㅎㅎ 토양이 다~ 썩었네.
 모두다 : 그럼시 수질도 오염 되쁘고 대기도 오염 되쁘고 토양까지도
 오염된 것이 구먼 이~~ 그럼 우리는 워쩐다나???
 (세제와 기름때가 민망해 하며 슬슬 뒷걸음질을 친다.)

M2
 환경이 : 기다려 기다려 아직 희망이 있다.
 심중에 환경 있거든 저 세제를 죽여라.
 (세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 세제와 기름때 도망간다.)
 후렴) 환경아리랑 오염 쓰리랑 ,아직 희망은 있네~~.
 아리랑 ㅎㅎㅎ 지구를 살려 보세.

수질이와 대기 그리고 오염이가 객석을 향해 소리친다.
 수질 : 얘! 그들말이야! 세제 줄여라~이!
 토양 : 얘! 그들말이야! 기름때 제발 버리지마라아~~
 대기 : 야! 그들말이야! 매연? 제발 뿜어 내지 좀 마란 말이 예
 다같이 : 나가 죽냐? 그들들이 죽제!

M3
 다같이 : 환경아리랑 오염 쓰리랑, 아직 희망은 있네~~.
 아리랑 ㅎㅎㅎ 지구를 살려 보세.
 우리가 지킨 지구 후손에게 물려주고
 살기 좋은 강산에서 살아가게 하세.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ㅎㅎㅎ 아라리가 났네.
 만경창파에 두둥실 뜬 배 살아 숨 쉬는 수질위에서 노를 저어라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ㅎㅎㅎ 지구가 살아났네.X2

END